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

A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and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황은애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이승신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Konkuk univ.
Doctoral course : Eun Ae, Hwang
Dept. of Consumer & Housing, Konkuk Univ.
Professor : Seung Si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how not only socio-economic variables but also lifestyle variables affect the expenditure and the patterns of household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conomic variables(e.g, income, saving, property) and lifestyle variable(e.g, enjoyment and convenience seeking type) affecte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Based on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were separated as 1)necessity dominant pattern, 2)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dominant pattern, 3)other consumption dominant pattern, 4)education · culture and recreation dominant pattern. The result of logistic analysis revealed that debt, saving and living location variables were major factors to determin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households. But did not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I. 서론

소비를 통한 복지의 달성은 가계행동의 중요한 목

표이므로 소비에 관한 국내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계의 소비지출과 패턴을 파악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본 논문은 황은애(1998)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한 것임.

첫째,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한 최근의 연구(김기욱·이승신, 1990; 양세정, 1991; 이성민, 1992; 류재술, 1992; 정용선, 1993; 김영숙·심미영, 1994; 신재열, 1994; 양세정·강미나, 1995; 김영숙, 1996; 배미경·박광희, 1997) 등은 횡단적 접근법을 통하여 크게 단일소비품목과 전소비품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단일소비품목의 지출에 관한 연구는 세부적 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들 비목의 소비변동으로 인한 여러 소비비목간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를 고려치 않았으며 전소비품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는 포괄적 차원에서 지출패턴을 제시하였으나 가계의 세부적인 지출패턴을 파악하지 못하였다(정영숙, 1993).

둘째, 현재까지 소비지출패턴과 관련된 연구(정영숙, 1992; 정영숙, 1993; 손상희, 1993; 주인숙·양세정, 1997)는 대부분 연령, 성별,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으나 현대와 같은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시장이 성숙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원화, 개별화 되어가면서 인구통계적 요소만으로는 소비행위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가계의 소비지출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김영숙, 1989).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변수로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동기적 특성이나 활동영역, 관심분야, 태도 그리고 가치체계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생활양식은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소비행동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 구조와 더불어 개별가계의 소비행태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가계소비행위에 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해 주며 각 패턴의 소비수준과 소비의 질적인 면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패턴을 살펴보고 이의 중요 영향변수로서 사

회·경제적 변수뿐 아니라 주부의 생활양식 변수를 설정하여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Keynes가 그의 일반이론(1936)에서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거시경제학에서 출발한 소비함수이론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Keynes는 단기적으로 소비수준은 주로 현재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절대소득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Keynes의 기본가정은 첫째, 실질소비는 실질소득 즉, 절대소득의 안정된 함수이다. 둘째, 현재소비성향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셋째,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떨어진다. 이 세 가지 기본가정을 만족하는 함수는 소비를 C , 소득을 Y 라 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C = \alpha + \beta(Y) \quad \alpha: \text{기초소비}, \beta: \text{한계소비성향}$$

이상과 같은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이 제시된 이후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도 많은 소비함수의 논쟁이 있어 왔다. 특히 장기시계열에 있어서의 실증분석이 절대소득과 다른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 이론들이 Duesenburry의 상대소득가설,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Modigliani와 Brumberg의 생애주기가설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생활경제연구모임 편, 1993).

이상의 소비함수가설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를 소득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까지 가계의 소비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소비자수요결정모델에서는 가계 소비지출은 이상의 소득뿐 아니라 가계의 기호와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Bryant, 1990). 이에 가계가 소유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호와 선호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대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에 대한 기호와 선호를 분석해 보려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함께, 연령, 교육, 직업, 취업자수, 가계의 크기, 가계의 구성형태, 주거보유상태, 거주지 등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가계의 기호와 선호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지금까지 많은 국내연구(최은숙, 1990; 김영숙, 1989; 이성민, 1992; 정영숙, 1992; 정영숙, 1993; 주인숙·양세정, 1997; 배미경·박광희, 1997; 조유현, 1997)에서 사용되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의 기호와 선호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완전한 의미에서 가계의 기호와 선호에 따른 가계의 소비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가계선호는 개별가계가 지니고 있는 욕구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계라 할 지라도 가계욕구의 형태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 선택행동은 다른 유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주인숙·양세정, 1997).

따라서 소비경제학자들은 가계의 기호와 선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욕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Cochrane와 Bell(1956)은 욕구를 소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았고(Magrabi, Chung, Cha & Yang, 1991, 재인용) Kyrk(1933)은 가계가 갖고 있는 욕구는 소비가치를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소비수준의 완전한 설명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측정뿐 아니라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질서, 의식 및 관습, 그리고 가계가 소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욕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kyrk의 주장을 지지하는 접근이 생활양식(Life-Style)의 규명이다.

사회과학에서 생활양식개념의 사용은 Veblen, Weber, Adle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Well & Cosmas, 1977). Veblen은 생활양식을 가계의 소비에서 나타나게 되는 방식으로 간주하고 Weber는 현재의 소속된 집단에서 영속된 하위문화로서 간주하면서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Adler는 생활양식하의 각

각 개인의 고유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생활양식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내려 질 수 있으나 소비자행동에 관한 현재의 연구는 생활양식을 행동에 따른 특성적인 패턴과 가치, 태도, 관심, 의견 등을 포함하는 의식형태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Anderson & Golden, 1984). 또한 Uranyi-Unger는 1060-1961 data를 이용한 경험적인 연구에서 생활양식 집단은 존재하며 이것은 그들의 지출행동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재인용).

Mckracken(1998)은 그의 저서 『문화와 소비』에서 문화란 소비자가 그의 기호와 선호를, 나아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루며 형성하게 하는 생각이고 관념이며 행위라고 정의하고 문화적인 관념이나 생각하에서 동기화 되고 형성되며 또한 제약을 받는 욕구 혹은 기호와 선호 즉, 생활양식은 모든 점에서 소비행동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연구중에서 강이주(1989)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인 소득보다는 생활양식유형에 의해 '제품의 선택과 사용 및 처분양상'이라고 정의한 소비패턴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일기획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소비자조사]에서 소비유형(사용여부)을 종속변수로 하여 제 변수의 영향력을 판별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의 생활양식유형변수의 설명력은 인구통계적 변수의 3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순영, 1993).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기존의 설명 변수였던 사회경제적 변수에 비해 새로운 생활양식 변수의 소비행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함수의 기본이 되는 소득관련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기호와 선호의 대리변수인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그리고 기호와 선호발생의 근본인 욕구를 나타내주는 생활양식변수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에 미치는 생활양식변수의 영향력과 사회·경제적 변수와 비교해 볼 때,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함은 가계의 소비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생활양식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은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가?
3.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생활양식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가계에 거주하는 주부로 하며, 설문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전북, 광주, 전남, 경기도로서 모두 11개 지역에 걸쳐 비확률 표본추출의 하나인 편의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조사되었다¹⁾. 설문지문항의 수정과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는 1997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수정을 거쳐, 본 조사는 199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추출은 각 지역별로 주부의 연령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00부중 3120부(회수율:78%)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각 지역별로 185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203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용어정의 및 조사도구

첫째, 본 연구에서 생활양식은 개인의 내적 가치체계와 가정, 근접, 광역 등의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생활상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이 유형화되어

시스템적 체계를 이루는 욕구통합체로 정의하였다.

생활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여러 선행연구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활동(시간사용포함), 관심, 의견(가치관포함) 등의 AIO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7점 리커트척도로 50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가계의 소비지출은 실지출중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소비지출패턴은 가계구성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가 주어진 소득을 필요 소비항목들에 분배하고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특정한 소비유형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조사항목은 1996년 현재 도시가계연보에서 작성한 9대비목을 이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각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수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지출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비목별 지출비율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로 부인의 연령, 부인의 학력, 부인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 거주지역, 가족원수, 가족형태, 가족생활주기,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 부채, 월평균저축액, 총가계자산을 측정하였다. 이중, 월평균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이자소득의 합한 금액이고 부채는 은행대출이나 사채, 할부납입시 미불입액의 합한 금액이며, 월평균저축액은 적금, 보험, 연금 등이고 총가계자산은 증권이나 저축 등의 동산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합한 금액을 만원단위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서 Window용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표

1) 본 연구의 자료는 (주)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이승신교수가 연구를 수행한 1997년 '청소년의 용돈사용'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정리하여 사용하였음.

준편차 등을 구하였으며 생활양식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Varimax를 이용한 2차에 걸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최종 32문항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요인들은 생활양식유형으로서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시 각 유형에 속한 문항점수의 합을 도출하여 각각의 유형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소비지출패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유클리드의 거리사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과 워드(Ward's Method)를 통하여 군집화 하였고 Pseudo F값과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본 후,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유목변수의 성격을 가지는 각 소비지출패턴별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분석(Logistic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양식유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변수는 인구·가족변수와 경제 변수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5(100.0%)*

인구·가족변수			경제변수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부인의 연령	40세 미만	726(39.2)	주택형태	아파트	845(41.9)
	40-45세 미만	794(42.8)		단독주택	853(42.2)
	45세 이상	334(18.0)		기타	321(15.9)
부인의 학력	중졸	523(27.5)	주택소유형태	자가	1,504(74.8)
	고졸	883(46.3)		전세	406(20.2)
	전문대졸 이상	408(26.2)		월세 및 기타	102(5.0)
부인의 취업유무	유	733(37.6)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481(27.1)
	무	1,218(62.4)		250만원 이하	707(39.8)
남편의 직업	농임업 및 단순노무직	251(13.3)		251만원 이상	589(33.1)
	판매기술 및 상인제조업	366(19.4)	평균	227만원	
	사무 및 전문직	499(26.5)	부채	없음	1,095(61.9)
	경영관리직	321(17.0)		50만원 이하	511(28.8)
	자유직 및 기타	449(23.8)		51만원 이상	60(9.3)
거주지역	특별시	185(9.5)	평균	17만원	
	광역시	687(34.1)	월평균저축액	30만원 이하	764(39.3)
	도청소재지	152(7.6)		80만원 이하	767(39.5)
기타시지역	987(48.8)	80만원 이상		412(21.2)	
가족원수	4명	1,067(60.6)	평균	56만원	
	5명 이상	791(39.4)	총가계 자산	1억 이하	798(41.4)
가족형태	핵가족	1,629(80.8)		1억 5천 이하	771(40.0)
	확대가족	206(10.2)		1억5천 100만이상	338(18.6)
	기타	181(9.0)	평균	1억2천155만원	
가족 생활주기	초·중등교육기	962(47.4)			
	고등교육기	661(32.5)			
	대학교육기	408(20.1)			

*무응답으로 인하여 사례수에 차이 있음

한편, 도시주부의 생활양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으로서 이 요인은 자신의 주위와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동참하려 하며, 구매행위에 있어서도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경제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특히 합리적 소비의사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매전 계획, 정보수집, 예산에 맞는 구매 등을 행하는 유형이다. 이 요인은 전체 분산중 17.3%로서 4개요인중 설명력이 가장 높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간의 신뢰도는 $\alpha=.8102$ 로 나타났다.

둘째, 향유·편의추구형은 앞서 살펴본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과 반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근검절약하기 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과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유행을 의식하고 고급품 지향으로 구매하며, 생활의 편리용품을 갖추려 노력하고 레저나 취미생활을 중시 여기는 요인이며 전체 분산중 7.6%이고 문항간의 신뢰도는 $\alpha=.6280$ 이다.

셋째, 진보적 변화추구형의 생활양식은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특히 여성의 역할변화와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진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현실 만족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의 변량은 4.9%이고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Cronbach α 값은 .5933이다.

넷째, 보수적 생활유지형은 앞서 살펴본 진보적 변화추구형과 반대적 성향을 가진 요인으로서 전통적, 보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새로움이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특히 우리 고유의 풍습을 지키려 하고 가장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구매행위에 있어서도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예전에 사용한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상표충실성이 나타나는 요인이다.

이 요인의 변량은 3.9%이고 Cronbach α 값은 .4786

으로 요인내 문항간의 내적일관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가계의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각 비목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대상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총지출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30만1천원이고 9대비목중 식료품비의 지출은 31만5천원으로 총지출에 24.2%를 차지하였다. 식료품비 다음으로 큰 지출비목은 교육·교양·오락비로서 22만9천원을 지출하여 17.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비 11.9%, 교통·통신비 10.8%, 주거비 10.5%, 피복·신발비 8.0%, 광열·수도비 6.6%, 가구집기·가사용품비 5.4%, 보건·의료비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한편,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간에 0.6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상관이 높은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인의 취업유무, 남편의 직업, 거주지역, 가족형태,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는 가변수화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총소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 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총가계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소유형태가 기타 및 월세에 비해 자가이거나 전세인 경우, 거주지역이 기타시지역에 비해 특별시인 경우, 주부의 생활양식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주택유형이 기타형태에 비해 아파트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에 비해 판매 및 상인 제조업이나 사무 및 전문직인 경우, 주부의 생활양식이 진보적 변화추구형일수록,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인 경우, 총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도시주부의 생활양식유형

행렬	요인	요인 I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	요인 II (향유·편의 추구형)	요인 III (진보적 변화추구형)	요인 IV (보수적 생활유지형)	h ²
미리 계획을 세워 구매하는 편이다.		0.61917	-0.08075	0.09169	0.08880	0.40168
무슨 물건을 살지 내용설명표를 비교한다.		0.59127	-0.03051	0.08974	0.08855	0.36642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		0.58636	0.19627	0.18903	0.04065	0.41972
휴식시간에 주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0.55788	0.06607	0.07384	-0.10675	0.33244
식품이나 세제 등을 구입할 때 환경오염문제를 생각한다.		0.55122	-0.07084	0.09633	0.17177	0.34965
신문의 경제란도 관심 있게 읽는다.		0.52254	0.21983	-0.03876	0.11963	0.33179
상품구입시 많은 정보를 갖는다.		0.51605	0.38669	-0.01789	0.02392	0.41674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도와주는 편이다.		0.48905	0.01634	0.11241	0.03687	0.25343
식료품을 살 때는 매우 까다롭게 살펴본다.		0.48719	0.07269	0.02712	0.27188	0.31729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기려 한다.		0.48664	0.28307	0.12872	-0.03562	0.33479
돈, 명예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0.48134	-0.10440	0.22201	0.24855	0.35366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0.42741	-0.10649	0.34540	0.20895	0.35698
누구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0.40609	0.02276	0.23636	0.17776	0.25289
친구나 이웃사람들이 가끔 내 조언을 들으러 온다.		0.40490	0.24096	0.06412	-0.10934	0.23807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0.36686	-0.25360	0.24496	0.15455	0.28279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한다.		-0.06228	0.69748	-0.03611	-0.10412	0.50250
고급품 지향으로 사는 편이다.		0.08740	0.67013	-0.11395	-0.02943	0.47056
냉장고, 에어컨, 자동세척기 등 편리용품을 많이 갖추려 노력한다.		-0.04434	0.66300	0.08974	0.09185	0.45803
취미나 레저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0.31883	0.46343	0.14147	-0.12446	0.35192
저축의 형태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구입이 가장 좋다.		0.14261	0.43384	0.16089	0.17191	0.26400
대학진학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0.00325	0.41721	0.11637	0.20802	0.23089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바람직하다.		0.06492	0.09457	0.65910	-0.09495	0.45659
남편도 집안 일을 나누어 해야한다.		0.14534	0.15771	0.55241	-0.02423	0.35174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다.		0.24006	-0.07446	0.50857	0.04700	0.32402
여성들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0.01657	0.06069	0.50799	0.02232	0.26251
여성이나 주부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이 많다.		0.41090	0.09648	0.45075	-0.01490	0.38154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0.15001	-0.00221	0.40793	0.19306	0.22619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과거 해오던 전통적 방식을 따르는 편이다.		0.04709	0.02423	-0.09087	0.65339	0.43798
명절에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지켜야 한다.		0.14077	0.00235	0.18680	0.57493	0.38526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0.12422	0.10336	-0.07247	0.51119	0.29268
현재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0.00677	-0.05084	0.32265	0.43822	0.29877
어떤 물건이든 같은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편이다.		0.11212	0.35701	-0.00484	0.38121	0.28537
고 유 치		5.5452	2.4325	1.5424	1.4767	
전 체 변 량		17.3%	7.6%	4.9%	3.9%	
누 적 변 량		17.3%	24.9%	29.8%	34.4%	
Cronbach α		.8102	.6280	.5933	.4786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I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	1.00000				
	요인 II (향유·편의추구형)	0.24972	1.00000			
	요인 III (진보적 변화추구형)	0.49813	0.18112	1.00000		
	요인 IV (보수적 생활유지형)	0.33059	0.17816	0.21669	1.00000	

〈표 3〉 가계의 비독립 소비지출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총소비지출 1301만원 (1000)	식료품비 315만원 (242)	주거비 137만원 (105)	광열·수도비 86만원 (66)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79만원 (54)	패복· 신발비 104만원 (80)	보건·의료비 65만원 (50)	교육·교양· 오락비 229만원 (176)	교통·통신비 140만원 (108)	기타소비지출 155만원 (119)
독립변수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부인의 연령	2.9305(.0205)	1.0464(.0333)	0.0508(.0022)	-0.1208(.0106)	0.3525(.0275)	0.5683(.0381)	-0.3342(.0305)	0.5916(.0157)	-0.0342(.0024)	0.8188(.0331)
부인의 학력	4.1239(.0236)	0.6887(.0230)	0.4427(.0197)	-0.5498(.0502)	-0.0632(.0051)	0.4148(.0288)	0.0006(.0000)	2.8522(.0733)**	1.1200(.0860)**	0.6784(.0281)
부인의 취업: 유	-11.6674(.0363)*	-0.0847(.0018)	1.5468(.0460)	-0.3202(.0195)	-0.1623(.0087)	0.0384(.0046)	0.0017(.0001)	1.2913(.0240)	-1.1582(.0534)*	0.7885(.0218)
남편의 직업:										
판매 및 상인제조업	16.1983(.0628)*	2.4107(.0426)	2.5722(.0539)	1.7619(.0859)**	0.6004(.0260)	1.4109(.0524)	1.2296(.0622)	-0.0561(.0008)	-0.4492(.0172)	-2.5557(.0562)
사무 및 전문직	61.157(.0265)	-1.6246(.0320)	1.3472(.0360)	0.5827(.0318)	-0.4327(.0209)	0.4692(.0195)	0.8734(.0494)	-2.4333(.0406)	-0.3447(.0148)	-1.1274(.0280)
경영관리직	21.1046(.0778)*	2.3274(.0396)	1.2344(.0282)	1.0024(.0470)	-0.1152(.0048)	0.2900(.0107)	0.7329(.0357)	0.8453(.0363)	1.0643(.0363)	1.8174(.0387)
자유직 및 기타	12.6967(.0440)	1.7250(.0257)	2.6861(.0539)	1.8919(.0869)**	0.3391(.0129)	1.3067(.0428)	-0.1657(.0047)	-1.4206(.0187)	0.6532(.0224)	0.9809(.0192)
거주지역: 특별시	36.3410(.1050)**	18.7489(.2491)**	2.3265(.0416)	1.5361(.0589)*	0.0839(.0027)	1.4587(.0408)	0.9112(.0348)	17.0161(.1903)**	2.8897(.0639)**	1.5843(.0267)
광역시	4.3610(.0215)	5.2232(.1104)**	0.2109(.0060)	1.0524(.0615)*	-0.5806(.0301)	1.0313(.0460)	0.1743(.0165)	1.7163(.0397)	-1.4254(.0657)*	-0.1648(.0044)
도청소재지	4.5213(.0117)	2.0777(.0241)	3.7747(.0582)*	1.0033(.0324)	0.2243(.0063)	0.7392(.0180)	0.5034(.0168)	1.3474(.0132)	-0.1445(.0066)	3.7127(.0542)
가족원수	-3.647(.0171)	1.3778(.0294)	-1.4189(.0410)	0.2210(.0131)	0.4814(.0252)	1.2229(.0550)	0.4316(.0265)	2.8629(.0517)	-0.3832(.0183)	-1.9279(.0518)
가족형태: 핵가족	31.4822(.1081)	6.8039(.1059)	0.2183(.0045)	-1.9248(.0818)	-2.2107(.0826)	-3.6319(.1175)	-0.4292(.0190)	10.9718(.1426)**	0.8496(.0285)	0.4325(.0083)
확대가족	25.4947(.0802)	5.7577(.0826)	2.0083(.0362)	-1.657(.0464)	-3.1931(.1117)	0.0319(.0036)	-0.7656(.0316)	11.2680(.1369)**	1.5780(.0465)	0.7784(.0139)
가족생활주기	0.7344(.0035)	-0.5469(.0185)	1.1435(.0266)	-0.0638(.0079)	-0.0430(.0136)	0.3216(.0228)	0.3187(.0309)	-0.4530(.0123)	0.6603(.0487)	-0.0589(.0025)
주택형태: 아파트	17.4836(.0495)**	3.9649(.0871)*	-2.7228(.0736)*	0.3864(.0204)	0.0294(.0016)	-0.3250(.0150)	-0.0240(.0015)	7.5407(.1389)**	0.4333(.0207)	0.1296(.0036)
단독주택	-0.6912(.0033)	0.0036(.0001)	0.0723(.0431)	0.3065(.0132)	-0.9700(.0529)	-0.6029(.0274)	0.4696(.0291)	1.7412(.0318)	0.1109(.0052)	0.6204(.0169)
주택소유형태: 자가	28.0179(.1173)**	3.0705(.0580)	-2.1083(.0537)	-0.0763(.0040)	1.4681(.0578)	1.3623(.0542)	1.2416(.0575)	2.8531(.0456)	0.5688(.0235)	0.8184(.0195)
전세	23.4624(.1806)**	1.4194(.0249)	-2.8822(.0679)	-0.1230(.0063)	0.6938(.0569)*	0.6341(.0235)	1.0861(.0548)	3.1661(.0471)	1.6110(.0619)	0.7380(.0163)
월평균소득	-35.5830(.1180)**	0.2594(.0039)	1.1320(.0538)	1.1660(.1132)**	0.6201(.0227)	-0.6010(.0191)	-0.1372(.0059)	4.6791(.1386)**	1.1870(.0907)**	2.4777(.1083)*
부채	31.3382(.2230)**	-0.2845(.0094)	-0.8887(.0177)	0.4338(.0180)	0.8926(.0726)**	0.7532(.0527)	0.3851(.0367)	-2.1723(.0276)	1.0382(.0341)	0.1063(.0020)
월평균저축액	20.3872(.1510)**	3.5301(.1198)**	0.5507(.0252)	0.0032(.0003)	0.6788(.0563)*	0.8369(.0597)*	0.3668(.0347)	0.8582(.0240)	1.1018(.0798)**	0.8448(.0353)
총가계자산	0.1914(.0217)	0.0465(.0240)	0.0411(.0288)	0.0094(.0134)	-0.0568(.0717)*	-0.0194(.0211)	-0.0108(.0160)	0.0514(.0577)	0.9012(.0866)*	1.1601(.0493)
사회지향적합리주의형	1.5488(.0914)**	0.2865(.0780)**	0.1469(.0338)	0.0207(.0154)	0.1778(.1171)**	0.3149(.1789)**	0.1087(.0842)**	0.3327(.0735)**	0.1384(.0813)**	0.1393(.0470)
합유·필의 추구형	1.2008(.0583)*	0.2141(.0450)	0.0415(.0118)	0.0553(.0322)	-0.0247(.0128)	0.0430(.0191)	-0.0049(.0030)	0.1806(.0337)	0.0590(.0271)	0.0865(.0237)
진보적비합리추구형	0.0018(.0005)	-0.0127(.0024)	-0.0769(.0196)	0.0307(.0161)	0.0688(.0319)	-0.1164(.0464)	-0.0358(.0032)	0.0366(.0059)	0.0587(.0243)	-0.1444(.0342)
보수적생활유지형										
R ²	.223,3820	.19,9748	.51,279	.1,0506	.0,9099	.0,9475	.0,2801	.33,9297	.8,7924	.2,7786
F	3157	1950	6614	0458	0489	0628	0277	1755	1100	6509

*P<.05 **P<.01 ***P<.001
 기준: 부인의 취업 - 무
 거주지역 - 기타 시지역
 주택형태 - 기타

남편의 직업 - 농어업 및 단순노무
 가족형태 - 기타
 주택소유형태 - 월세 및 기타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저축액이나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소비를 근본적으로 소득의 함수라고 본 여러 소비함수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생활양식유형중 향유·편의추구형과 진보적 변화추구형이 총소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향유·편의추구형은 경제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소비지향적 생활을 지향하는 유형이므로 이 유형에 속할수록, 가계의 소비지출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진보적 변화추구형도 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그러한 욕구나 필요가 소비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총소비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총가계 자산이 많을수록, 주택형태가 기타에 비해 아파트인 경우, 생활양식 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식료품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료품비목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소득의 증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양식유형과 관련하여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식료품비지출이 많아지게 되는데, 주부의 생활양식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외식을 자주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편의식품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주거비지출에서는 주택형태가 단독주택에 비해 기타인 경우,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도청소재지인 경우, 주거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거비는 기호나 선호, 혹은 생활양식을 반영한 특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계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소비되어지는 필수재라 할 수 있다.

넷째, 가계의 소비지출비목중, 광열·수도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소

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농임어업 및 단순노무직에 비해 판매기술 및 상인제조업, 자유직 및 기타인 경우,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광역시나 특별시인 경우, 광열·수도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소득이 많고 특히 남편의 직업이 상인제조업이나 자유직 및 기타일 경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가내에서 일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광열·수도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에서는 생활양식의 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총가계 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양식이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인 경우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월평균소득과 저축액, 자산이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많이 지출함을 볼 때, 이 비목은 가계비목중 필수재라기 보다는 선택재나 사치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양식중 두 요인의 영향력으로 볼 때, 향유·편의추구형과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은 소비행위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의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생활양식유형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피복·신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생활양식 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에 비해 기타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총가계 자산이 많을수록, 피복·신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가족형태중 기타인 경우는 확대가족에 비해 비교적 가족원수가 적으므로 피복·신발비와 같은 필수재가 아닌 비목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피복·신발비 지출도 경제적 변수와 향유·편의추구형의 생활양식유형에 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사치재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생활양식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보건·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점차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미래에도 즐겁게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나 발생시 보건·의료비를 지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유·편의추구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교육·교양·오락비지출은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형태가 기타에 비해 핵가족이고 확대가족인 경우, 주택형태가 기타에 비해 아파트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총가계자산이 많을수록,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양식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교육·교양·오락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거주지역중 서울시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기타시에 비해 일류학교에 진학하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므로 과외나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양식유형중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향유·편의추구형의 성향을 가진 주부들은 다른 요인의 성향을 가진 주부들에 비해 자녀들의 교육비뿐 아니라 레저나 취미생활을 중시하므로 교양오락비의 지출도 타 유형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교통·통신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생활양식유형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총가계자산이 많을수록, 부인이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을 한 경우,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서울이나 광역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빈도가 잦은 대도시에서는 기타시에 비해 교통·통신비가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인이 취업을 한 경우는 전업주부보다 교통비의 지출이 더 많을 것이므로 거주지역이나 주부의 취업유무도 교통통신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기타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소비지출을 이루는 항목이 주로 장신구나 교재비, 경조사비임을 감안해 볼 때, 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받은 선택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소비지출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았는데, 각 비목별로 영향변수가 상이하였으나 월평균소득이나 월평균저축액, 가계자산 등 경제 변수는 대부분의 비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였고 생활양식유형중 향유·편의추구형은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기타소비지출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주부의 생활양식이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각 비목별 지출은 증가하여 소비지향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연구

본 장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패턴별 소비지출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은 군집분석에 이용된 1595가계중 48.8%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목별 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지출이 29%로 다른 패턴에 비해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식료품비와 함께 필수재로 간주되는 주거비의 지출도 12.6%로 다른 패턴에 비해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패턴은 <표 3>에 나타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의 각 비목별 평균 지출과 비교해 볼 때,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제외하고 선택재로 간주되는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비가 평균구성비보다 낮으므로 주로 필수재 위주로 가계소득을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의 비목별 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다음으로 교통·통신비를 많이 지출하고 전체 구성비의 17.9%를 차지하여

〈표 4〉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지출비목	패턴 1 생활품비 우위적패턴	패턴 2 교통·통신비 우위적패턴	패턴 3 기타소비지출 우위적패턴	패턴 4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패턴
가 구 수(%)	778(48.8)	708(44.4)	51(3.2)	58(3.6)
총소비지출(%)	135(100.0)	112(100.0)	190(100.0)	127(100.0)
식료품비(%)	39(29.0)	23(20.5)	32(16.8)	32(25.2)
주 거 비(%)	17(12.6)	10(8.9)	14(7.4)	12(9.5)
광열·수도비(%)	9(6.7)	8(7.1)	9(4.7)	10(7.9)
가구·가사용품비(%)	8(5.9)	6(5.4)	9(4.7)	5(3.9)
피복·신발비(%)	10(7.4)	9(8.0)	16(8.4)	10(7.9)
보건·의료비(%)	6(4.4)	7(6.3)	9(4.7)	6(4.7)
교육·교양·오락비(%)	23(17.0)	14(12.5)	24(12.6)	27(21.3)
교통·통신비(%)	12(8.9)	20(17.9)	12(6.3)	11(8.7)
기타소비지출(%)	11(8.1)	15(13.4)	65(34.2)	14(11.0)

다른 소비지출패턴에 비해 월등히 지출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생활품비 우위적 패턴에 비해 식료품비와 주거비 지출비중이 낮은 반면 기타소비지출은 〈표 3〉에 나타난 평균보다도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나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는 평균지출과 거의 비슷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은 식료품비나 주거비 등 생활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을 교통·통신비에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패턴으로서,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은 군집분석에 이용된 가계중 3.2%가 이 유형에 속해 있고 4개 패턴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9대비목중, 기타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의 필수재에 대한 지출비중이 4개 패턴중 가장 낮아 평균지출과 비교해서 월등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선택재의 비중도 평균지출비중보다 낮아 비목간 가장 불균형적인 소비지출을 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은 군집분석에 이용된 가계중 3.6%가 속해 있는 유형으로서,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비중이 식료품비 다음으

로 높은 21.4%로서 다른 소비지출패턴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다. 이 패턴은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재에 해당하는 비목의 지출비중은 〈표 3〉에 나타난 비목의 평균지출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으나 교육·교양·오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택적 비목은 평균보다 낮게 지출하고 있어, 선택재 지출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가계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교육비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가계소비지출구조가 왜곡된 형태를 지니는 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각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분석의 결과를 요약정리 하였다.

1) 생활품비 우위적 패턴

이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변수와 관련하여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기타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타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는 교육·교양·오락비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등의 선택재를 소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넓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적으므로 기타시에 거주할수록, 더욱더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채가 많을수록,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심영(1993)은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부채가 전혀 없거나 혹은 적은 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부채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가계는 필수적인 소비지출비목들에 더 많은 예산을, 비필수적이며 사치품적인 소비지출비목들에 예산을 덜 할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의 검증결과,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본 연

〈표 5〉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
		b(β)	b(β)	b(β)	b(β)
부인의 연령		-0.0719(.0284)	0.0833(.0330)	-0.0417(.0165)	0.1241(.0491)
부인의 학력		0.2161(.0888)*	-0.2051(.0843)	0.0662(.0272)	-0.1274(.0523)
부인의 취업 : 유		-0.2500(.0687)	0.3100(.0851)*	-0.2645(.0727)	-0.0730(.0201)
남편의 직업:					
판매 및 상인제조		-0.1493(.0335)	0.0868(.0195)	-0.1034(.0290)	1.0500(.2355)
사무 및 전문직		-0.0479(.0116)	0.0543(.0132)	-0.1406(.0342)	0.06051(.0147)
경영관리직		-0.0980(.0204)	0.0391(.0081)	-0.5376(.1120)	1.2446(.2594)
자유직 및 기타		-0.0567(.0110)	0.3408(.0662)	-1.0959(.2130)*	-0.5531(.1075)
거주지역: 특별시		-0.9388(.1556)***	0.7891(.1308)**	1.0278(.1703)	1.1494(.1905)
광역시		-0.3193(.0836)*	0.3108(.0814)	0.1459(.0382)	0.0505(.0132)
도청소재지		-0.3874(.0588)	0.4035(.0613)	-0.8677(.1317)	10.81891(.6424)
가족원수		0.0001(.0000)	-0.1281(.0344)	0.4004(.1076)	0.6494(.1744)
가족형태: 핵가족		-0.3310(.0641)	0.3429(.0665)	0.4306(.0834)	-10.2340(1.9831)
확대가족		-0.6616(.1200)	0.7920(.1436)	-0.0975(.0177)	-10.3878(1.8839)
가족생활주기		0.0413(.0176)	-0.0134(.0057)	0.1600(.0684)	-0.4320(.1847)
주택형태: 아파트		-0.1544(.0424)	0.2589(.0710)	0.4027(.1105)	-1.8126(.4973)
단독주택		-0.1790(.0484)	0.3009(.0814)	-0.1771(.0479)	-1.3856(.3746)
주택소유형태: 자가		-0.0296(.0070)	-0.0405(.0095)	-0.0285(.0067)	0.2249(.0530)
전세		0.1336(.0290)	-0.2833(.0616)	0.7461(.1622)	0.2131(.0463)
월평균소득		-0.1531(.0670)	0.1055(.0462)	0.2420(.1058)	0.1564(.0684)
부채		0.6779(.1220)***	-0.6538(.1177)***	-0.4164(.0750)	-0.0275(.0050)
월평균저축액		0.2979(.1225)***	-0.4564(.1877)***	0.4441(.1825)	0.8782(.3610)**
총가계자산		0.0876(.0370)	-0.0661(.0279)	-0.2855(.1207)	0.1121(.0474)
사회지향적합리주의형		0.0128(.0827)	-0.0085(.0550)	-0.0021(.0133)	-0.0334(.2160)
향유·편의추구형		-0.0174(.0577)	0.0182(.0606)	0.0192(.0638)	-0.0253(.0841)
진보적변화추구형		-0.0109(.0290)	-0.0019(.0050)	0.0235(.0624)	0.0717(.1904)
보수적생활유지형		-0.0072(.0173)	0.0064(.0154)	0.0179(.0430)	-0.0097(.0232)
상수		-1.5897	2.2755	1.5702	13.7360

*P<.05 **P<.01 ***P<.001

기준 : 부인의 직업 - 무

거주지역 - 기타시지역

주택형태 - 기타

남편의 직업 - 농임어업 및 단순노무직

가족형태 - 기타

주택소유형태 - 월세 및 기타

구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영향변수로서 월평균저축액이 있는데, 이것은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의 가계는 가처분소득에 여유가 있어서 모든 가계비목에 지출하고 난 나머지를 저축한다기보다는 필수재에 지출한 나머지를 선택재나 사치재에 지출하지 않고 비소비지출인 월평균저축에 배분하게 되어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

이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저축액이 적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거주지역이 기타시에 비해 특별시인 경우, 부인이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을 한 경우,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은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과는 반대로, 가계의 여유 있는 가처분소득을 저축하기보다는 가계내 긴요도가 높은 교통·통신비에 비중을 두어 지출하기 때문에 월평균저축액이 적을수록, 이 패턴에 속하게 된다. 또한 부채가 적을수록, 이 패턴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패턴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부채에 부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자가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기타시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

이 소비지출패턴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직업이 자유직 및 기타에 비해 농임어업 및 단순노무직인 경우,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은 기타소비지출비목의 지나친 지출비중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평균보다 낮게 지출하는 불균형적 소비지출구조를

가진 패턴이고 농임어업 및 단순노무직의 비교적 낮은 소득계층이 이 패턴에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저소득가계일수록, 재화나 서비스의 최적 선택을 통한 효용 극대화의 측면에서 매우 불균형적인 소비지출패턴이라 할 수 있다.

4)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

이 소비지출패턴은 월평균저축액이 많을수록,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에 속할 확률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패턴은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저축액이 낮은 가계가 속해 있으므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나, 자녀의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단계이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저축으로 보유하다가 저축액을 교육·교양·오락비에 지출하여 다른 지출비목에 비해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비중이 큰 소비지출패턴을 형성한다고 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 있으나, 가계가 처한 상황에 의해 다른 선택적 비목의 지출을 자제하고 교육·교양·오락비지출 비중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조사대상가계의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소비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소비지출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비목간의 관계구조에 의해 형성된 소비지출패턴의 영향요인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는 부채나 월평균저축액 등의 경제 변수의 경우, 소비지출패턴이라는 개별가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변수 외에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의 관련변수로서, 거주지역은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을 제외한 3개유형의 패턴에 영향을 미쳤는데, 도시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은 가구원의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가계를 둘러싼 지역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즉, 제한된 환경요인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칠 중요변수로 설정한 도시가계 주부의 생활양식 유형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요변수로 설정한 생활양식변수는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지출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요인은 향유·편의추구형으로서 총소비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목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양식과 가계의 소비지출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인구통계적 변수뿐 아니라 생활양식 변수에 대해 Mitchell(1983)이 개발한 VALS(Values and a lifestyles)²⁾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체계화되고 정교화된 연구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가계의 소비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소비지출패턴의 분석결과, 우리 나라의 가계소비지출은 그 유형별로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채, 월평균저축액과 같은 경제 변수와 거주지역변수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주부의 생활양식유형 변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제일기획의 연구보고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 개별가계의 소비행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생활양식변수보다는 그 영향력이 지배적이며 가구원의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가계를 둘러싼 지역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제한된 환경요인에 의해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고 가계의 욕구를 충족하기보다는 가계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도시가계 전체의 소비지출에 대한 생활양식변수의 영향력 검증으로 볼 때, 개별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생활양식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존재하며 이는 소비시장이 성숙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원화, 개별화

되어 갈수록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셋째, 소비지출패턴중 생필품비 우위적 패턴은 각 비목간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지출패턴을 이루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택재의 지출비중이 낮아, 가구원의 욕구나 필요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기타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아직까지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선택재에 대한 소비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선택의 폭도 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마케팅관련 연구자나 유통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소비지출패턴중 교통·통신비 우위적 패턴은 월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가계들로서, 경제적 압박은 크지 않으나 교통·통신비의 지나치게 높은 비중과 필수재의 비중이 낮은 행태를 이루고 있어 가계소득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는 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여유자금을 가족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계소득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타소비지출 우위적 패턴과 교육·교양·오락비 우위적 패턴은 조사대상가계중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계소비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불균형이 심화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월평균소득이 낮은,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가계이나 특정비목의 우위적 지출이 모두 선택재 중심으로서 상대적으로 필수재의 지출비중이 적음을 볼 때, 비록 소수의 가계이나 소비지출패턴에 있어서 문제를 내포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비자 교육과 가계재무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2) 미국에서 연구된 생활양식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접근 방법으로서 욕구의 위계단계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성인 남녀를 9개의 생활양식유형(생존자집단, 지지자집단, 소속자집단, 경쟁자집단, 성취자집단, 독자적집단, 경험적 집단, 사회의적 집단, 통합적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소비자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인식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및 패턴과 관련된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표집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수록, 표집이 매우 중요함을 비추어볼 때,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표집에 좀더 체계화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 가계의 소비지출과 패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가계나 소비구조에 있어서 불균형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기욱·이승신,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990, pp.15-31.
- 2)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3) 김영숙, 도시가계의 경조비지출구조분석, 소비자학연구, 7(1), 1996, pp.1-22.
- 4) 김영숙·심미영, 도시 근로자 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pp.1-15.
- 5) 류재술, 적응적 기대(AE)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함수추정-분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의 비교연구: 1970-1990년, 소비자학연구, 3(1), 1992, pp.80-95.
- 6) 배미경·박광희, 도시가계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1), 1997, pp.415-427.
- 7) 생활경제연구모임, 가족경제학, 도서출판 한터, 1993.
- 8) 손상희,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1993, pp.51-72.
- 9) 신재열,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10) 심 영,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1993, pp.29-50.
- 11) 심종섭,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구매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2) 여운승, 국내 라이프스타일 재정립을 통한 시장세분화 이론개발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3) 이은희,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4) 양세정, 도시가계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1991, pp.54-67.
- 15) 양세정·강미나,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6(1), pp.57-67, 1995.
- 16) 이성민,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1992.
- 17) 이승신 외,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1996.
- 18) 이상을 편,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7.
- 19) 정영숙,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3(2), 1992, pp.1-14.
- 20) 정영숙, 도서지역과 육지의 소비지출구조와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4(1), 1993, pp.23-38.
- 21) 주인숙·양세정,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pp.277-290.
- 22)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 1997.
- 23) 황순영, 국내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유용성 및 적용한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4) Anderson, W.T., Jr & Golden, L.L, Lifestyle and psychography: A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 In T. C. Kinnear(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11, pp.405-411, 1984.
- 25) Bryant W.K,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6)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 Employment, Interest, Money,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36.
- 27) Kryk, H,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3
- 28) Magrabi, Chung, Cha & Yang, The Economic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1991.
- 29) Mitchell Arnold, Nine American Lifestyle: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3.
- 30) Wells, W.D & Cosmas, S.C, LifeStyles In Selected Aspects of Consumer Behavior, DC: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77.